

【멕시코에서 오카야마의 ESD를 어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유네스코와 멕시코 시티 정부 주최의 「제2회 학습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계의 시장들이 연설하는 회의가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와 함께 한국과 독일 그리스, 자메이카, 브라질 등의 수장이 자체의 시책을 어필하는 가운데 저도 오카야마의 지금까지의 ESD 활동, 특히 공민관을 거점으로 한 「ESD 오카야마 모델」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해 오카야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회의에서 많은 분과 알게 된 뒤의 연설이었고 세계의 ESD 활동을 선도하는 오카야마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회의에 참가했을 때 OECD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 과장이 일본은 지적 수준은 높지만, 업무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여성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어, 여성이 빛나는 도시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새롭게 했습니다.

덧붙여 회의에 앞서 개최된 만찬은 같은 테이블의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 멕시코 시티의 교육 담당 간부, 중국 교육부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ESD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을 포함하여 왕복 20시간 가까이 걸리고 현지의 순수 체재는 이틀간이라는 굉장히 힘든 일정 속에서의 회의출석이었지만, 시차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카야마 시내의 관계자와의 협력에 힘써 가면서, 오카야마의 ESD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이 처음 멕시코 방문이었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체가 극심했다는 것. 호텔에서 만찬 장소까지 3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등 극심한 혼잡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약 900만명,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2,000 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있는 거대 도시인 멕시코 시티는 빈부 격차가 크고, 치안도 좋지 않아 안정된 수입이 있는 시민은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극심한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 이 근처는 일본과는 사정이 달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동안 멕시코 음식도 먹어봤습니다만, 소스가 매워서 힘들었습니다. 매운 것을 싫어하는 분은 멕시코에 가실때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체류중 주 멕시코 일본 대사 이하 대사관 여러분에게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